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20만여 불자가 모여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사과·파면 없으면 승려대회 개최

8·27 범불교도대회 "화합·중흥 의지 다진 계기" ... 전국 지역별대회도 고려

8·27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 27일 대회에 약 20만명이 참가하면서 불자들의 단합과 불교중흥의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불교계 의지를 드러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교계 요구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와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교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봉행위원회 대변인 승원 스님은 8월 28일 논평을 통해 "범불교도대회를 여법하게 봉행한 것에 대해 모든 불자들이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회에서 확인한 불자와 시민들의 종교화합과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종교평화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강원이 방학 중이고, 선방이 해제철이라 수좌승들이 만행을 떠났는데도 1만 명의 승려가 모인 것

은 불자들이 받아들이는 '종교 편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봉행위원회의 평가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한 불교계는 추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석 이후 영남권을 필두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8월 31일 초하루법회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법회'를 개최한 봉행위원회는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한 단계 강도를 높여 승려대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승려대회가 열린다면 조계종 소속 스님 1만3000여 명을 비롯해 태고종 6000여 명, 천태종 500여 명 등 모두 2만여 스님이 집결하게 된다. 이 대회에는 수행에 전념하는 수좌스님들이나 원로, 대덕스님들까지 참여하는 만큼 신도들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은 엄청나다.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일부 스님들이 '소지(燒指)' 또는 '소신(燒身)' 공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점을 감안할 때

승려대회가 봉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충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부대중의 준엄한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 사과는 물론 경찰청장의 파면, 국민대화합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장관 사과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항의 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봉행위원회는 추석이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권역별

정부규탄 범불교도 대회'에 대비해 9월 초 8·27 대회 평가와 봉행위원회의 조직개편,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총사퇴 등 장기적인 대정부 항의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불교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시간을 끌면 끝수목 깊어지는 불교계의 갈 등을 한시라도 빨리 매꾸어야 한다.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직자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도, 경제 살리기도, 나라의 선진화도 불가능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이로봇

"스님들 쓸데없는 짓 말고 예수 믿으라"

장경동 목사 범불교도대회 앞두고 미국서 망언 ... 편향사례 줄이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8·27 범불교도대회를 전후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종교편향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니터링 감시 강화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각 종단과 언론사에 관련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종교편향 내지 차별 사례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다.

◇ 장경동 목사 "스님들 쓸 데 없는 짓 말고 예수 믿으라"= 장경동 목사대신 중문침례교회 담임목사는 8월 11일 미국 뉴욕순복음교회 집회에서 "내가 장경동교단을 만들면 안 되듯이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어 그는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 등의 망언을 했다.

◇ 구리시청, 두레교회 위장 준공 해위=경기도 구리시 의회는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레교회 건축허가변경에 시청이 준공처리가 지 해주었으며,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 위장준공 후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는 이어 "박영순 구리시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현재 밀알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레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예배로 유명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 노동부, 설문조사서 '스님'을 '중'으로 표기=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KEIS) 실시 중인 '2008년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조사' 설문지에서 '승려' 부분에 '중'을 명시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2003년부터 근로자

성과 업무특성, 노동시장정보를 조사, 활용 목적으로 실시돼 청소년 진로상담등에도 사용된다. 불교계는 '중'이란 표현은 '승려' '스님'을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됐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오현섭 여주시장 '복음EXPO' 발언사과="하나님 선물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박람회로 만들겠다"고 간증(본지 694호 2면 보도)했던 오현섭 여주시장이 8월 25일 개인성명을 발표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불교계 반응은 싸늘하다. 공식사과가 아닌 개인성명 형식인데다, 성명서 내용이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일부 언론매체의 종교편향성 지적과 관련하여"라는 성명서에서 "모든 종교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담아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적절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근본주의적 사고가 문제"

기독교 인사들 종교 차별 관련 반성 촉구

사상최대 규모의 대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로 종교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야기한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이 잇따라 이명박 정부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종교간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사진)는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 연대사를 통해 불교계의 주장을 옹호했다. 김 신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정부는 실용이란 미명하에 정교분리의 대원칙마저도 저버리고 말았다"며 "참된 길, 진리의 길, 정의와 평화의 길에 지지와 격려를 전해주었다"고 강조했다.

KNCC의 권오성 목사 역시 28일 모 방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정부 인사들의 종교편향"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연덕교회)도 같은 날 모 방송에 출연해 "큰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불교도의 항의를 받은 것은 그



리스도인의 명예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종교편향을 비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성교회)도 홈페이지(www.koreanchinese.tv)에서 "기독교 일각의 근본주의적 사고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해결을 위해 꾸준한 종교간 대화, 인내와 관용, 반성과 화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종교편향은 인권침해"

불교·원불교인권위 공동 성명

"종교편향은 가장 큰 인권침해다." 불교·원불교 인권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에 대한 사과와 중단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와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는 8월 25일 조계사 입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 편향·종교차별을 사과하고 국민주권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사찰 역사문화경관 지원

국토부 지침 개정고시

전통사찰이 뒤늦게 역사문화경관 자원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조계종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8월 27일 판보를 통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김성우 기자

Bong (사)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창립 · 불교태권도시범단 창단식 행

우리민족의 고유한 무술인 태권도는 그 근원이 불무이며 선무술인 동시에 그 바탕을 불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승불교의 이념과 실행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위대한 부처님의 사상을 널리 포교하지 못하고 세계 200여개국에 태권도를 보급한 중주국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물론 국내에도 태권도를 통한 포교에 주도권을 잃어버린 현실을 불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불교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선포교 담당을 위해 불교 태권도 연맹 및 시범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초대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뢰을 말씀은 금번 2008 불교박람회장에서 세계불교태권도 연맹 창립과 아울러 불교태권도시범단 창단식을 거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총재 정해안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세계최초로 사단법인 세계불교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순수 위력격파대회이며, 주먹 및 손날, 발 격파를 중심으로 여성격파 대학, 일반 종합격파를 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위력격파만을 위한 시합이 주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한 모든 경연부분에는 유급단이 무관하며 태권도를 주 종목으로 하는 불교연맹이지만,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의 폭을 넓혀 태권도와 타 무술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 2008. 10. 3(1일간)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상 금 : 500만원, 왕중왕 벨트
주 최 :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주 관 :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
연 락 처 : 031-963-2345 / 010-9500-3977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786번지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접수기간 : 2008. 9. 20일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 2008 국제 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
E-mail : lasung7415@hanmail.net
Fax 031-963-2392
우편접수 : 2008 국제왕중왕 격파대회 조직위원회